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예비문화도시
:
‘한국섬진흥원’ 유치까지



낭만항구 **목포**는 축제다

ROMANTIC PORT MOKPO

대형 공모사업 잇단 선정...시, 지역 강점 부각·정책화 노력 결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예비문화도시 등 정부의 대형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유치 하면서 목포시의 역량이 주목 받고 있다.

목포시는 인천, 충남, 경남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14일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으로 확정 발표가 나면서 정·관계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호와 함께 축하의 메시지가 북돋아 주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도 유치 축하 관련 글들이 쏟아졌고, 공감댓글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모처럼 하나로 모아져 자축의 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목포 시가지 도로 곳곳에는 '전라도 민, 목포시민의 승리다' '시민의 자랑스러운' '목포시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다' 등의 문구가 담긴 유치 축하 현수막들로 축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15일 "국가 유일의 전문기관을 지방 중소도시가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섬진흥원 유치는 목포의 강점과 부단한 노력이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하

면서 시민들의 격려와 박수에 감사함을 전했다.

목포시는 섬진흥원 공모에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강점을 내세웠다.

목포의 강점을 섬, 바다, 근대역사문화자원, 문화예술 등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연계하는 데 집중해왔다.

시는 발빠르게 2012년 전국 최초로 섬 전문 국가 기관 설립을 제안했고, 이후 기관·단체에서 설립 논의를 확산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섬의 날인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삼학도에서 개최했다.

이처럼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시는 목포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의 전략산업과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과 연계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목포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해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

신안농협, 중앙회 평가 '2관왕'

'우수조합장상'·'우수농축협 사무소 표창장' 수상

신안농협이 2020년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경영평가'에서 '우수조합장상'과 함께 '우수농축협 사무소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

15일 신안농협에 따르면 신안농협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꾸준한 농협개혁과 농민과의 소통으로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말 기준 종합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등급 96점으로 '우수조합장상'을 받았으며, '상호금융대상'에서 '우수농축협 사무소 표창장'을 수상했다.

특히 신안농협은 농업인 실익지원 평가부문에서 조합원 1인당 판매사업, 판매사업 성장률, 조합원 1인당 구매 기타사업 등 평가에서 70점 만점에 67.5점을 얻어 경제사업 우수농협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동치 조합장은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사업 다각화에 노력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 구매사업은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을 달성하고, 판매사업은 전년 대비 109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교육지원사업,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성과를 이루는 업적을 보여줬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벼 수매금 미리 받자...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20만~250만원...20일까지 신청

진도군이 최대 250만원을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8억원 을 투입한다.

농업인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

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군이 이자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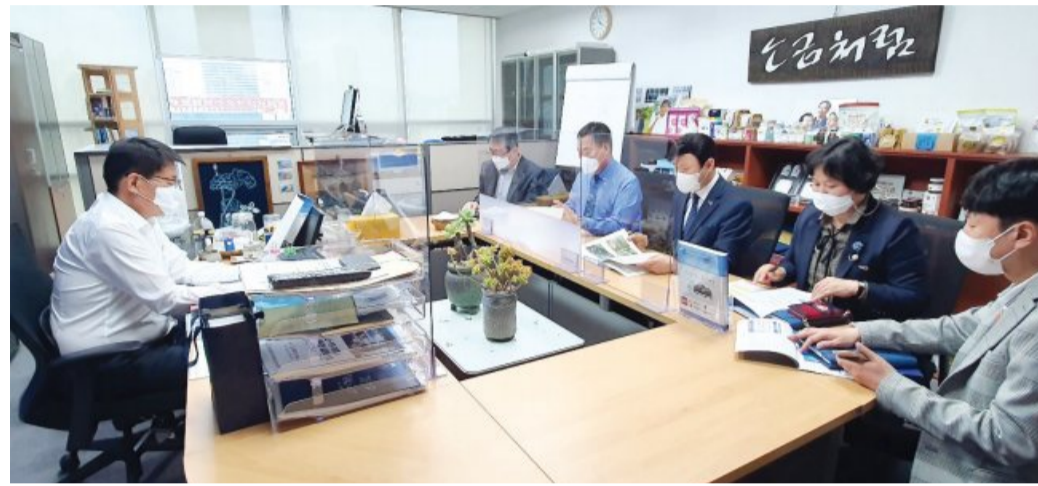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지난해에 월급제에는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무안군, 지역 현안 국비 확보 쟁결음

김산 군수, 국회 방문

무안군이 국회를 찾아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쟁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하천 오염원 제거 및 자연생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창포호 비점오염저감 사업, 주민들의 일상 속 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무안남산공원 소읍지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어업인들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어항 재생사업, 주민안전 및 생활편의를 위한 ▲사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로 공공하수 처리

장 등이 포함됐으며, 총 사업비 1160억원 규모다.

또 오는 5월 오프라인 계획인 428억원 규모의 2022년 농촌융합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안에도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의 숙원사업인 시(市) 전환 추진을 위해 도청 소재지로서의 광역행정 중심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난 2011년 11월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 국회방문에 이어 이번달 말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등 관계자들에게도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암 하은적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1점 설치

영암군이 등산객 안전한 산행을 위해 하은적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31점을 설치 완료했다. <사진>

국가지점번호판 건물이 없는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누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만든 위치 정보체계다.

번호판에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의 위치·소방서 담당자의 번호가 있어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덕전면 백룡산, 금정면 국사봉 등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34점을 설치한 바 있다.

군은 2013년부터 영암군 11개 읍·면의 왕래가 빈번하고 재난안전 사고에 취약한 주요 등산로와 해안가 지역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과 342점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노인회관 35년 만에 신축

구교리에 1113㎡ 규모...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 등 입주

해남군 노인회관이 35년 만에 신축됐다.

지난 1986년 지어진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물은 내부 균열과 누수 현상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신축이 추진됐다.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명륜관 군수가 직접 국비 확보에 나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해남을 구교리 기존 부지에 새롭게 문을 연 노인회관은 20억5600만원을 투입, 1113㎡ 부지에 연면적 677㎡ 지상 2층으로 들어섰다.

1층은 사무실과 식당, 2층은 땅끝시니어클럽과 작업실·회의실 등이 입주했다.

새 노인회관에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운영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100세 프로그램·노인대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2만2000여 해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명륜관 해남군수는 "신축된 노인회관이 해남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값지게 쓰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